

# 해외연수자 간담회

건협은 지난 10월 27일 '89년도 본회 해외연수자 중 과장급 이상 직원 13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해외연수에 참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눔으로써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특히 그동안 중단되다시피한 해외 교류사업을 보다 적극화하고자 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 시 : 1989. 10. 27. 13:00~16:30      장소 : 본부 회의실

참석자 : '89년도 해외연수자 중 과장급이상 총 13명



사회 : 우선 사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89년 한해 동안 건협에서 실시되었던 해외연수에 참가해서 느

끼고 배운 점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는 얼마 동안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던 국제 교류 사

〈대만연수팀〉

성정웅 총무부장  
이 순 경북지부 사무국장  
마희연 홍보과장

〈일본 연수팀〉

김봉수 총무과장  
설성수 전북지부 사업과장  
김연수 전남지부 사업과장  
장상철 경기지부 사업과장  
허운영 충북지부 사업과장  
김선웅 서울지부 부속 강동의원

〈예방의학사업 촉진대회 참가자〉

서기홍 서울지부 사무국장  
양재희 사업과장

〈나고야 기술 연구팀〉

윤영식 서울지부 검사소장

〈진행 : 최익현 사업부장〉

업이, 건강관리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국제적 기술 도입이 점진 실시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 주변 인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고 이에 따른 상호간의 기술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은, 일본 예방의학사업중앙회, 중화민국 기생충방치회, 일본 나고야 공중의학연구소 및 일본 예방의학사업 촉진대회에 참가했던 분들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하기로 하고, 자유롭게 연수시에 느끼셨던 점 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성정웅부장 : 저는 대만 기생충방치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무원과 협회 직원 공동으로 조직되어 있고 상호의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짧은 사업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같은 건강관리 사업 기구도 발족시키고 있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기홍국장 : 저는 나고야 공중의학연구소를 방문하고, 마침 일본에서 열리고 있던 전 일본 예방의학사업 촉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나고야 공중의학연구소는 우리나라에 비해 몇가지 면에서 아주 발전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업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 암검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40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학교 보건법을 기초로 하여 노, 심전도, 혈액, 장내 세균검사 등을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점, 사업장에서, 신규채용 근로자들에게 고용 전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점, 그리고 특



성정웅 총무부장

이한 것은 1일 20명 내로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교육적, 홍보·계몽적 효과를 얻고

있는 점. 등등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로 홍보활동 측면을 보면, 결과 통보시 요관찰사항에 관련된 계몽자료를 첨부해서 수검자의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몽용 팜플렛이 알기쉽게 만화 형식으로 제작, 배포되기 때문에 사회 계층, 연령에 구애없이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국가차원의 중요문제로 받아들여져 국가 주체의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것도 인상적이지요. 특히 이 홍보사업은 대부분 지역사회조직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꼭 받아들여야 할 과제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재희과장** : 국장님 말씀처럼 일본의 건강관리 체계는 정말 저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기간 동안, 참가했던 예방의학 촉진대회는 저에게 많은 감동을 남겨 주었습니다. 시즈오카에서 열린 이 대회는, 단체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후생성, 문부성, 노동관계관 등을 총 망라하여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고 있음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각 전문분야별로 사업촉진대회가 열리는데, 한 자리에서 모두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라는 점도 참 인상적이었지요. 시즈오카시 전체가 말 그대로 축제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규모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사진 좌로부터 서기홍 국장·김봉수 과장·장상철 과장

었습니다. 국민의식 향상의 측면에서나 건강관리 사업의 체계화·협력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영식소장** : 일본 예방의학사업의 장점은 장비,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잘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고야 공중의학연구소에서 제가 배웠던 점은 직원들의 업무자세가 아주 성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출근과 동시에 소관별로 청소, 업무준비를 하더군요. 얼른 보아서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커다란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몸에 밴 듯한 친절함과 인사성은 직장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해 주더군요. 꼭 배워야 할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친절이 바로 일본인들의 민족성이기도 하지만 전혀 권위 의식이 없이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봉수과장** : 저는 일본 예방의학 사업 중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저희와 유사했지만, 특이할 만한 점은, 학교보건·모자보건·성인보



사진 좌로부터 허윤영 과장·김선웅씨

건·산업보건 등에 대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사업대상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25명 이상의 의사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휴일에도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산측면에서 살펴볼 때, 중앙회의 연간 예산이 4억 5천만원, 동경지부가 42억 2천만엔인데 지부의 경우는 전부 검사수입이라는 점에서 방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연수과장 : 중앙회의 세입원은 33개 지부에서 검사수입액의 0.1%를 중앙회에 납부하고 있고, 자전거친흥회 기부금 1억 5천만엔, 기타 잡수입 2천만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모든 기관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장상철과장 : 이동건강 검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일본의 이동검진 사업에도 관심이 가더군요. 동경지부의 경우, 위촬영 검진버스 2대를 비롯해서 최신장비를 보유한 검진차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이 집단 검진으로 건강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

니다. 또, 냉동차량을 이용해서 가검물을 운반하는 것이라든가 유소견자의 희망에 따라 직접 진료를 하고 있는 점은 저희도 생각해 보아야 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윤영과장 :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점이 위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방의학사업중앙회의 경우 오염방지와 정확한 검사를 위해 모든 부서마다 청결과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설성수과장 : 동경도 지부의 경우, 예산 수입의 대부분이 검사수입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가능한 것 역시 제도적 측면이나 관리체계의 측면이 보장되고 있고, 또 그만큼의 역할을 하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되어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사회 : 지금까지 일본 건강관리사업의 현황과 특색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건강관리사업의 범위, 검진체계의 선진성, 사후관리의 체계적, 교육적 측면 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보다는 조금 뒤떨어진 감이 있지만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사진 좌로부터 양재희 과장, 김연수 과장



있는 중화민국 기생충방치회의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아까 성부장이 말씀해주셨지만, 대만은 짧은 기간동안에 기생충 관리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사업의 시작에도 관심을 쏟고 있지요.

마희연과장 : 대만 기생충방치회는 재단법인으로써 1975년 6월 18일 대만 화폐 200,000원으로 설립,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전국적으로 353명으로, 이 가운데 본부 임원 45명, 집행부 13명, 각 시현 29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228명은 정부지원 공무원이고 나머지 125명만이 순수 방치회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행정업무능률이 대단했습니다. 또, 기생충방치회 사업의 지원부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주 다양했습니다. 사업시기가 되면 일사불란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중국 국민당 중앙재무위원회, 행정부 위생서(우리나라의 보사부), 대만성 정부 교육청, 대만성 정부 위생처, 대만성 전염병 연구소, 고웅의학원, 중화민국 부녀 유아 위생협회 등에서 보건교육을 겸한 지원사업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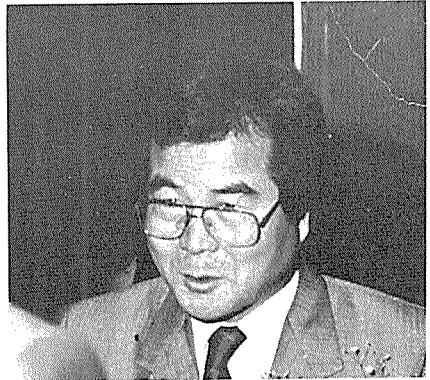
사진 좌로부터 설성수 과장, 이순 국장



해, 사업추진의 활발성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이순 국장 : 사실 기생충방치회의 역사는 저희보다 짧습니다만, 공무원과의 공동사업추진과 조직, 인력, 그리고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 등에 힘입어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기생충퇴치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성정응부장 : 대만의 기생충 감염 실태



최익현 사업부장

를 살펴보면, 회충을 비롯한 일반 기생충은 거의 퇴치되었습니다. 현재 관리는 지역별로 양성율 25% 이상 지구와 양성율 25% 이하 지구로 구분 선정하여 지속적 검변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요 검사대상을 학생으로 하고 연간 1백 83만 7천여명을 검사하고 있었고, 최근들어 요충검사를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할만 합니다.

마희연과장 : 검사수수료의 부담과 징수 방법도 살펴볼 만 합니다. 검사수수료는 1인당 22원으로, 산지(오지)학생은 성 정부 위생처에서 전액 부담하고 빈곤학생은 정부가 반 부담, 일반학생은 자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 방법은 행정계를 통하여 징수하여, 정부에서 방치회로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회의 예산은 정부 보조금 형식으로 연간 8천여 만원 정도를 수교,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연간사업 소요 경비를 제외하고 매년 천여만원 정도를 이월, 우리나라처럼 건강관리협회 사업 기금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 국장: 사업추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추진방법은 저희 협회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검사는 시군별 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운 한 것은 직원들의 시간관념이 철두철미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정응부장: 검사는 매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 처리로, 양성자 가족 전원에게 무료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희연과장: 기생충방치회 지원금 5천만원을 기금으로 1988년 7월 재단법인 중화민국 위생보건 기금회를 설립해, 우리나라 건강관리사업과 같은 것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경우도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가 사업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 협회나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선웅: 그리고 더불어서 검사 제도적 측면의 발전된 점은 검토하여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일본 나고야 공중의



윤영식 소장(사진좌) 마희연 과장

학연구소에서는 세포진 검사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도관리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발전의 선상에 있다고 자부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업측면에서의 건강보험제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생 건강검사, 회원관리제도 등과, 홍보 측면에서의 전국 규모의 세미나, 홍보용 팜플렛의 임체화, 단순화, 결과 통보시의 계몽자료 배포, 사후관리 등은 이후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데에 생각을 같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비의 최신화, 확충, 정도관리, 직원의 근무자세·사명감 등도 배우고 받아들여야만 올바른 건협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기된 것들은 추후 검토해서 가능한 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